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수익을 기대한 분양, 공사는 멈추고 대출이자만 늘어나고 있다면.

분양대금 1억 1,490만 원 인용

반환금 인용

114,900,000원 및 판결에서 정한 이자 지급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원 고 원상회복 청구의 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피 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00,000원 및 그 중 14,9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3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0.부터 각 2021.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은 완공 후 수익을 기대하며 펜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1,4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완공 시기가 지나도 공사는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급한 돈에 대한 금융비용만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의뢰인이 완공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위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02 막연한 기다림을 계약해제와 반환 청구로 바꾸다

해당 계약에서는 등기 이전의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계약 당시의 완공 설명, 공사 진행 상황과 이행 요구의 경과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단순한 일정 지연인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상황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반환을 구할 금액도 실제 입금 내역과 연결했습니다. 계약과 별도로 관리 약정이 있었던 만큼 누가 분양 대금을 받았고 어느 회사가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당사자 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의 핵심

분양 설명·공사 지연·이행 요구·납부 내역을 하나의 청구로 정리했습니다.

당신의 집과 가게,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묶여 있다면.

공사가 멈춘 펜션 분양. 해율은 1억 1,49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분양받은 펜션이 약속한 시기에 완공되지 않았다면?
- 수익 보장 설명을 믿었는데 대출이자만 늘어난다면?
- 계약금을 낸 뒤 공사 현장에 진척이 없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분양계약자를 대리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에서는 분양 당시의 설명과 이후 이행 지체, 반복된 이행 요구 및 세 차례의 대금 지급 내역을 연결하여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사정을 넘어 해제의 근거와 반환액, 각 지급일에 따른 이자 청구를 특정하여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는 절차로 이어간 사례입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분양회사에 **1억 1,49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준공이 계속 미뤄진다면 완공 약속만 반복해 듣는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계약과 지급 자료를 바탕으로 분양관계를 정리하고, 이미 낸 대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법원의 판단으로 연결한 결과입니다.

결과의 핵심

분양대금 전액과 판결상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공사가 멈춘 펜션 분양. 해율은 1억 1,49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계약해제를 요구해도 시행사가 답을 미룬다면?
- 분양계약과 관리계약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면?
- 분양을 계속 기다릴지 계약을 끝낼지 결정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